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1-1】(20점)

○ 모범답안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소외된 존재(계층)들 간의 연대와 공존(상생)

혹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계층)들의 공존과 상생의 가능성

○ 채점기준

- ▶ ㉠, ㉡, ㉢의 공통된 의미인 ‘소외된 존재(계층)’가 언급되어야 하고, 상생과 공존, 연대 등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20점을 부여한다.
- ▶ ‘소외된 존재(계층)’ 대신 ‘소수자’, ‘비주류’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 정답의 내용이 들어 있으나, ‘소외된 존재(계층)’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 10점 감점한다.
- ▶ 상생과 공존, 연대의 의미 대신 다문화주의 등의 포괄적 단어를 쓴 경우 5점 감점한다.
- ▶ 어법 및 문장 오류 3점 감점, 맞춤법 오류 2점 감점한다.

【1-2】(40점)

○ 모범답안

㉠ ‘구미호의 인간되기 과정’은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일방적 희생을 통해 주류사회에 편입해야 하는 동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수자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어렵게 한다.

○ 채점기준

- ▶ ㉠에 대한 의미해석과 비판적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40점을 부여한다. 의미만 해석하거나 비판만 한 경우 20점 감점한다.
- ▶ 의미 해석
 -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 소수자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소수자의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동화를 의미한다.
- ▶ 의미에 대한 비판
 -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어렵게 한다.
 - 소수자를 소외시킨다.
- ▶ 어법 및 문장 오류 3점 감점, 맞춤법 오류 2점 감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2>

【2-1】 (20점)

○ 모범답안

A 지역: 감소, B 지역: 증가

○ 채점기준

- 두 지역 모두에 대하여 인구 변화에 따른 상점 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였으면 20점,
- 두 지역 중 하나의 지역에 대한 상점 수 변화만 정확하게 추정하면 10점,
- 두 지역 모두 잘못 추정하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 0점

【2-2】 (30점)

○ 모범답안

100원 택시의 도입으로 상점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낮춰** 줌으로써 **재화의 도달 범위가 늘어나 상권이 확대**되었고, 상권이 넓어지면서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 **상점의 매출액(이윤)의 증가**하였을 것이다.

○ 채점기준

답안 작성에서 핵심은 **교통비 절감에 따른 재화의 도달 범위(상권) 확대(근거) → 소비자 수 증가에 따른 상점의 매출액(이윤) 증가(결과)**.

-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경우 30점
- 근거의 한 요소만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한 경우 혹은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결과의 일부만 제시한 경우 25점
- 근거만 제시한 경우 혹은 원인만 제시된 경우 20점
- 근거는 맞는데 반하여 결과가 모호한 경우 20점
- 근거는 모호하지만 결과가 맞는 경우 20점
- 근거 혹은 결과의 일부만 제시한 경우 15점
- 근거는 맞지만 결과가 틀린 경우 15점
- 근거는 틀리지만 결과는 맞는 경우 15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3>

【3-1】 (40점)

○ 모범답안

역선택에 따르면 주인인 인민이 대리인인 대표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이해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자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에 따르면 대리인인 대표자가 선출된 후에 원래 약속했던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 채점기준

▶ 역선택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 ① 행위자: 인민과 대표자 또는 유권자와 후보자와 같이 대의제에서 주인과 대리인을 나타내는 행위자가 둘 다 들어가야 함.
- ② 행위 :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은 답으로 인정함.

유사답안

- 인민이 대표자를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

부분점수

- 인민과 대표자를 인민과 대리인, 주인과 대표자로 쓰고 행위 부분을 정확히 쓰면 10점
- 인민과 대표자를 주인과 대리인이라고 쓰면 0점(사실상 동어반복)

▶ 도덕적 해이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 ①행위자: 대표자 또는 국회의원
- ②행위: 약속 또는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 인정

유사답안

- 대리인인 국회의원(대표자)이 선출된 후 공약(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 국회의원(대표자)이 선출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

부분점수

- 대표자를 대리인이라고 쓰고 행위 부분을 정확히 쓰면 10점
- 대표자가 부패할 수 있다와 같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관련이 있는 행위를 서술하면 10점

【3-2】 (20점)

○ 모범답안

- ㉠. 탄핵 요건 완화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대표자)의 권한을 강화한다.
- ㉡.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 채점기준

- ㉠ 직접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의제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다양한 표현 인정)
- ㉡ 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0점
- ㉢을 쓰고 직접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의제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5점
- ㉣ 대의제의 한 행태로서 직접민주주의 혹은 인민주권의 강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다양한 표현 인정)
- ㉤ 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으면 0점
- ㉥을 쓰고 정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의제를 강화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직접민주주의/인민 주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5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4>

【4-1】 (30점)

○ 모범답안

(가)는 평등의 근거를 정의감의 능력(도덕적 인격)에서 찾고 있지만 (나)는 쾌고 감수 능력(감각 능력,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는 평등의 대상(범위)을 인간으로 한정하지만 (나)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 채점기준

- ▶ 평등의 근거에서 (가), (나)의 차이점, 평등의 대상(범위)에서 (가), (나)의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위의 두 가지 차이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30점)
- 위의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15점)
- 위의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도 서술하지 못한 경우(0점)
- 앞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

【4-2】 (30점)

○ 모범답안

(병, 무)

○ 채점기준

- ▶ 맞는 선택지(병, 무)를 고르면 한 개 당 15점을 가산하고, 틀린 선택지(갑, 을, 정)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
- 병, 무만을 모두 고른 경우(30점)
- 병, 무 중에서 한 개만을 고른 경우(15점)
- 병, 무 중에서 한 개도 고르지 못한 경우(0점)
- 틀린 선택지(갑, 을, 정)가 포함되면 한 개 당 10점을 감점함.
- (예) 갑, 병, 무를 고른 경우(20점)
 - 갑, 병, 정, 무를 고른 경우(10점)
 - 갑, 병을 고른 경우(5점)
 - 갑, 을, 병, 정, 무를 고른 경우(0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5>

【5-1】 (10점)

○ 모범답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채점기준

▶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

【5-2】 (20점)

○ 모범답안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한다.

○ 채점기준

▶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20점.

방안이 제시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5점 감점

문법, 문장의 논리적 구성 등을 감안해 1-5점 감점

【5-3】 (30점)

○ 모범답안

그래프를 보면 기술직은 경력단절률이 높고 복귀율이 낮은 반면, 사무직은 경력단절률은 낮고 복귀율이 높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임신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술직이 실제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채점기준

▶ 그래프를 통해 기술직의 경력단절률을 사무직보다 높고, 복귀율은 사무직보다 낮음을 지적하고, 경력단절이 주요한 임금 격차의 원인이기 때문에 기술직은 사무직보다 여성에게 불리함을 서술해야 함.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기 보다는 성차별로 인한 결과임을 밝혀야 함.

- 그래프를 통해 기술직의 경력단절률이 사무직보다 높고, 복귀율은 사무직보다 낮음을 지적하지 않으면 5점 감점

- 임신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기술직보다 사무직을 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 기술직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 논의를 종합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차별 때문임을 밝히지 않으면 5점 감점

“사회적인 성차별” 외에 “여성이 사회에서 처한 차별적 현실” 등 같은 의미의 단어일 경우 점수 부여.

지문과 그래프에 의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출제의도에 벗어나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그 외 문법, 논리적 구성 등을 감안해 1-5점 감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I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6>

【6-1】 (20점)

○ 모범답안

유해한 예술과 지식에서 벗어나 무지, 순진함,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쓸모없는 지식의 오염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덕과 정직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 채점기준

▶ 제시문 (가)에서 “자연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 10점 부여, 단 주요개념이 빠졌을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2점 감점함.

▶ 제시문 (가)에서 “내적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경우 10점 부여, 단 주요개념이 빠질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2점 감점함.

【6-2】 (40점)

○ 모범답안

예술을 무위도식과 허영심에서 생기는 사치 추구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은 예술이 사회의 풍속과 인간의 정직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기며, 예술을 자신과 다른 집단을 구별 짓는 지적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예술이 다른 삶의 양식을 혐오하는 계급적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

○ 채점기준

▶ 제시문 (가)와 <보기>에서 각각 예술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각각 기술하여 그 차이점을 모두 드러낼 경우 40점 부여

▶ (가)와 <보기>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주요개념이 빠질 경우 2점씩 감점하고, 두 입장을 차이점을 드러내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2점씩 감점함.